

내외 소식

영남 부산 지방 대회 갖다

—한국 부산 선교부 발족후 처음으로—

영남 부산 지방부의 지방 대회가 7월 5, 6일 양일간에 걸쳐 33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지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한국인 형제를 선교부장으로 지지해 본 특별한 대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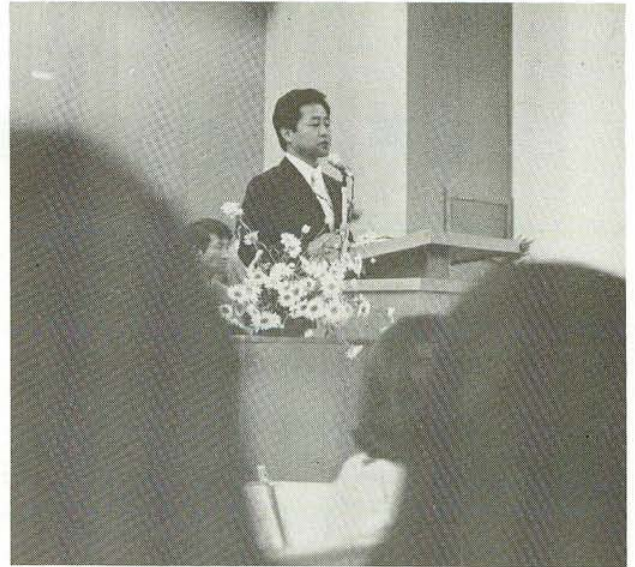
7월 6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총회는 선교사의 간증 순서와 배영천 지방부장, 이규인 자매, 한인상 선교부장의 순으로 말씀이 진행되었다.

한인상 선교부장은 우리들 모두가 사뮤엘상 15장 22절에 있는 “순종은 제사 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계명과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자고 강조하였다.

선교부장은 앞으로의 선교부 정책을 밝히면서 첫째, 교회의 모든 활동은 회원과 가족을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둘째, 교회 지도자는 회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셋째 모든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대회에서 다음의 형제가 대신권의 직분에 지지되었다. 박창선 형제(동구) 박희우 형제(부산) 이종광 형제(부산) 이진기 형제(서면) 김영탁 형제(동래)

또 새로이 탄생한 광안 지부의 지부장에는 그동안 지방부 서기로 수고하던 배창근 형제가 지지되었다.



서울 스테이크 서울 제 1와드 대회

서울 스테이크 서울 제1와드는 와드 대회를 맞아 7 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아론신권 및 청년회 대회를 갖고 이어서 13일에는 주일학교 대회를 가졌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아론 신권 및 청년회 대회는 연극, 노래자랑, 단막극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오랫동안 정성들여 모든 순서를 준비한 회원들은 숨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13일에 있었던 주일학교 대회에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평의원 및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시종 조용하고 영적인 가운데 주일학교 순서를 마쳤다. 저녁 성찬식에서 스테이크 부장단의 영적인 말씀을 들은 회원들은 그들의 간증과 각오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다.

이해동 형제 선행

신촌 지부 회원인 이해동 형제가 테레비전에 한국의 페스티벌로써 소개 되었다..

금년 75세의 이해동 할아버지는 5년전부터 고혈압과 중풍으로 고생을하여 오면서도 동리 공무원 아파트에 부속된 어린이 놀이터를 4년동안 비가오나 눈이오나 돌아보며 돌, 유리등을 말끔히 치워놓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정한 할아버지로 알려져 왔다.

회원이 된지 10여년이 된 이 형제는 돌무더기로 못쓰게 된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의 모금자리로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그의 지난 4년간의 일을 회고했다.

유종열 형제 일시 귀국



미국 뉴욕 주립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로 있는 유종열 형제가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한국 정치 학회와 재북미 한국 학자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6월 8일 일시 귀국하였다. 화학 박사인 아내 오세화 자매와함께 온 그는 이번 대회 기간에 후진국에서의 정책학 방법론이란 주제로 논

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73년에 비교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은 그는 동대학에서 중공 외교 정책, 극동 정치, 정치학 방법론 등의 강의를 맡고 있다.

뉴욕 한국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기도한 그는 권익현, 이낙연, 김명중, 안상인 형제를 비롯한 그곳 성도들의 근황을 들려 주었다.

그는 7월 3일 뉴욕으로 떠났다.

여수 지부, 대회 갖다

지난 6월 29일 여수 지부에서는 많은 지부회원과 지방부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대회가 개최되었다.

「교리와 성약 38편 27절」을 주제로한 이번 대회에서 지부장에 조학현 형제, 1보좌에 유금남 형제, 2보좌에 장웅택 형제가 각각 지지되었다.

또 28일 밤에 있었던 아론 신권 청년회 모임에서는 연극과 의상 발표회가 있었으며 참석한 모든 회원이 즐거운 시간을 갖었다.

한국대회에 당신의 이웃과 함께합시다.

1975. 8. 15-17

장충체육관

